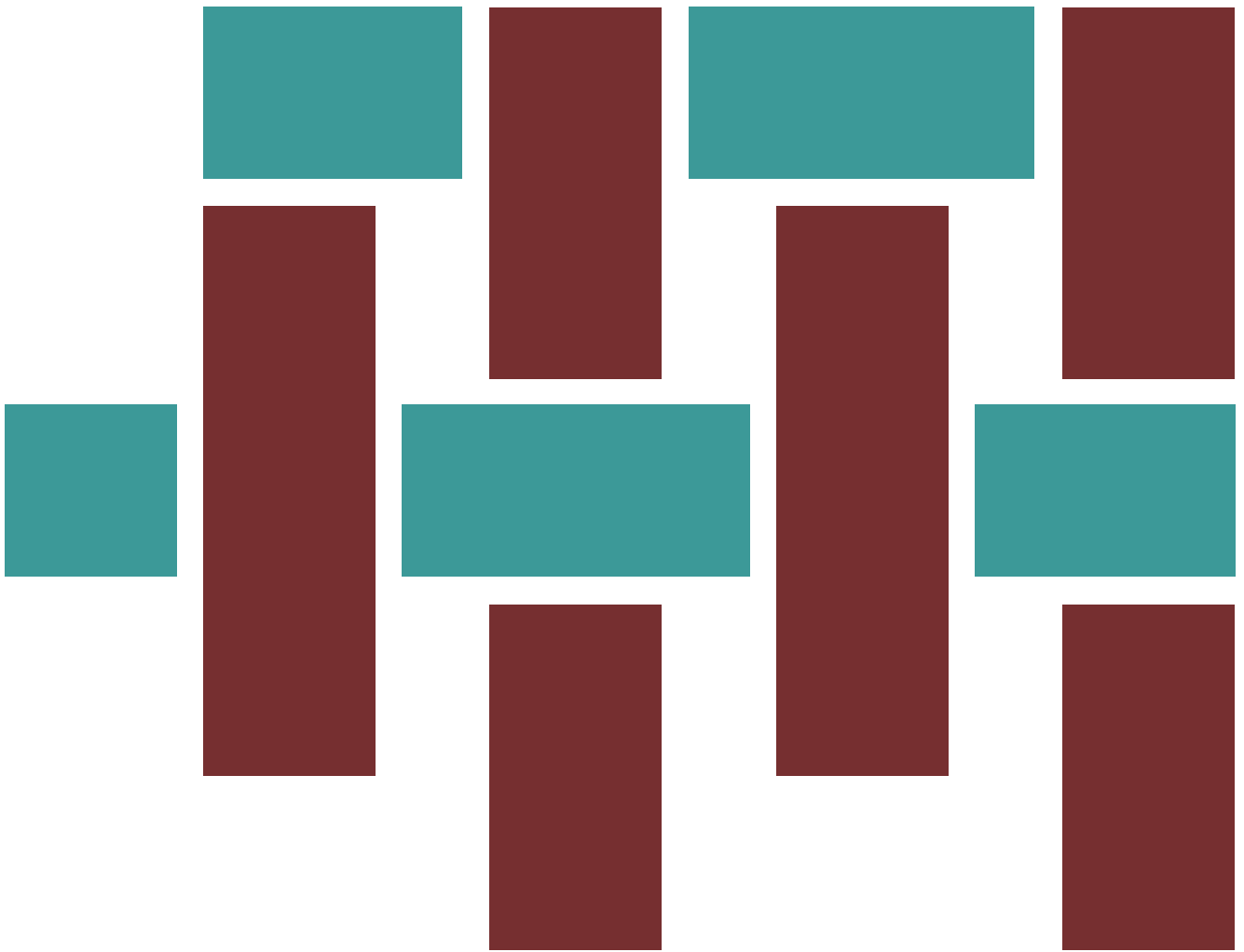


experience
Life As Mission

인터서브 2017년 연례 보고서

인터서브와 함께 하는 여정

A journey of Inter-Serving



1. 인터서브란? Interserve?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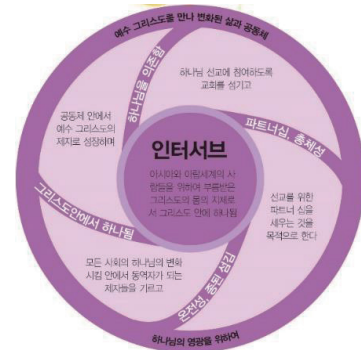
2. 비전 Vision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Lives and Communities Transformed through Encounter with Jesus Christ.

3. 목적 선언문 Purpose Statement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Our purpose is to make Jesus Christ know through wholist ministry,
in partnership with the global church, amongst the neediest peoples of Asia and the Arab world.”



4. 핵심가치 Core Values

하나님을 의존함 Dependence on God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또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공동체 Community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관계에 깊이 헌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태도와 행동에서 관대하고 유연합니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됨 Oneness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 민족, 사회 신분, 문화와 영적전통들의 다름에 근거한 모든 편견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기뻐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사역과 리더십 역할에서 함께 일합니다.

파트너십 Partnership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상호의존성 가운데 사역합니다.
우리는 참여적이고 지역 리더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온전성 Integrity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위로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에서, 일에서, 관계성과 영성에서 일관되고 진실하고 정직할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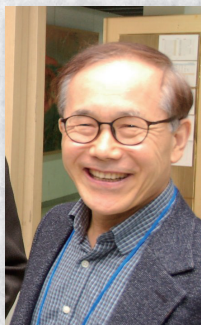
총체적 Wholistic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화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을 추구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예배, 선포, 섬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성품과 일을 증거할 것입니다.

종 된 섬김 Servanthood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랑과 겸손 안에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역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갈 것을 선택합니다.

성육신을 본받는 “Life As Mission”



인터서브코리아 이사장 김민철

저희 한국 인터서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인터서브는 땅 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이들과 동역하는 본부 및 이사들과 많은 후원자들이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국제 인터서브 선교회의 시작은 1852년이지만 한국 인터서브는 1990년에 시작되어 이제 28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인터서브는 땅 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이들과 동역하는 본부 및 이사들과 많은 후원자들이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국제 인터서브 선교회의 시작은 1852년이지만 한국 인터서브는 1990년에 시작되어 이제 28세의 젊은 청년입니다.

올 해도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의미와 ‘선교에서 성육신의 원리’가 잘 통합되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바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의 본질을 살아가는 파트너들과 인터서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동부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인터서브는 혼자 가는 대신 지난 166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쉬지 않고 달려온 국제 인터서브와 함께 가는 복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동역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사랑과 격려와 후원으로 한국 인터서브와 함께 동역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성의 성장



인터서브코리아 대표 조샘

2017년 허입 된 새로운 선교사들은 모두 12명입니다. 직업은 교사, 목사, 의사, 비즈니스, 난민 복지 등 다양합니다. 싱글 여성 두 명과 다섯 가정이었고 아이들은 14명이었습니다. 가려는 지역도 베트남, 레바논, 이집트, 네팔, 캐나다, 터키, 이란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는 인터서브 답입니다.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는 많은 이들이 올 2018년에도 인터서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들도 눈에 띕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서울 이태원의 무슬림들을 섬기는 사역, 기업에서 일하는 탈북여성들의 언니가 되는 One Korea 팀, 한국과 해외의 한인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깨우는 Life as Mission 스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십대의 젊은이들이 텐트메이커의 꿈을 키우며 매달마다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예배합니다.

대표로서 제가 가장 기쁜 것은 본부 분위기입니다. 스태프들과 파트너들은 일주일 하루 집에서 일하고, 플렉스타임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함께 정한 목표를 향해 창의적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열두시가 되면 서로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변화, 창의, 자유함과 예수님! 지금 인터서브는 힘차게 나아가는 28세의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선교사들의 후원액은 계속 떨어져 매달 평균 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본부 재정 역시 빠듯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평균 후원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 안에 가난한 이들입니다. 저는 올 2018년의 목표를 “공동체성의 성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델은 낮고 약한 이들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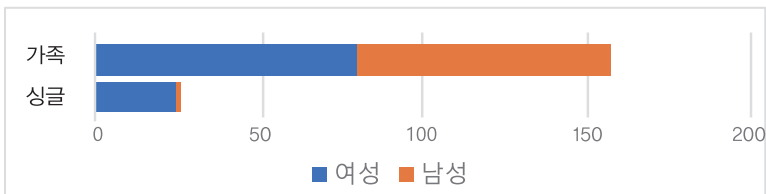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삶과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꿈꾸는 저희 인터서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서로 돌봄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집을 지는 공동체에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나라의 소식을 증거케 하시며 세상을 변화하실 것입니다.

2017년 인터서브코리아 파트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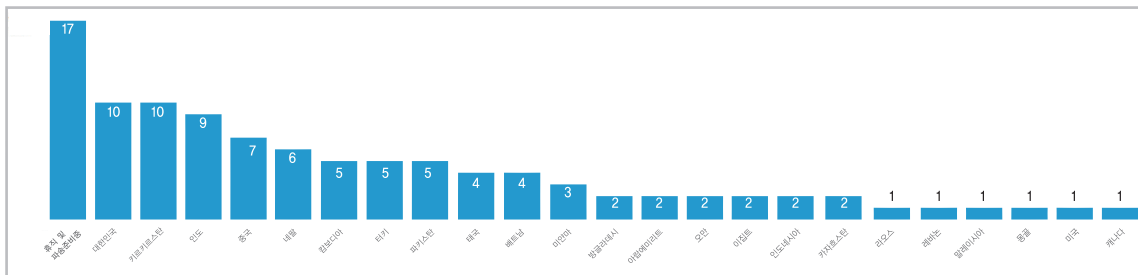
인터서브코리아는 “파트너”로 불리는 선교사와 “프렌즈”로 불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서로 도우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인터서브 코리아 총 파트너 수
181명 (103 un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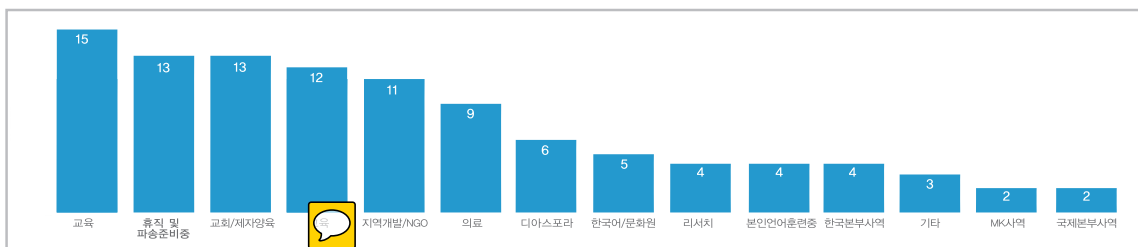
2017년 허입 파트너 수
12명 (7 un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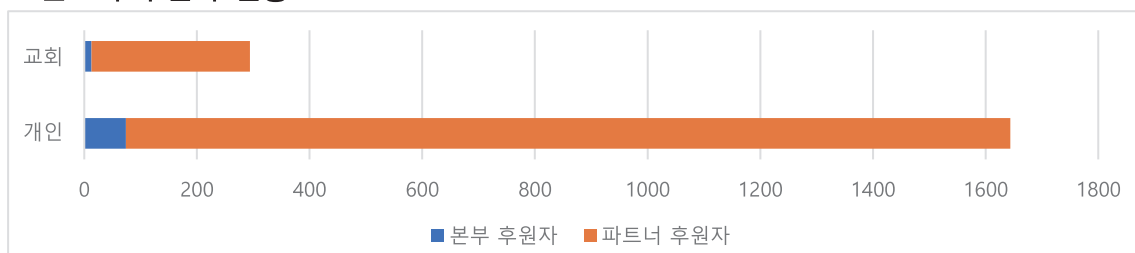
파트너
선교지
배치 현황
(unit 기준)



파트너
사역 분류
(uni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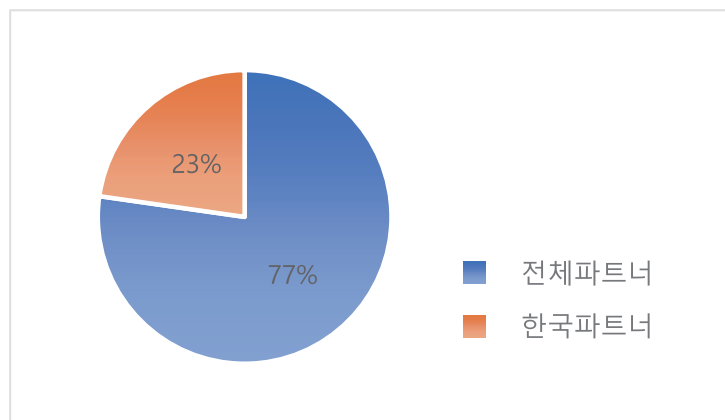


인터서브 프렌즈와 후원자 현황



국제 인터서브 현황 (2018년, 4월 기준)

파송국가 22개국
피파송국가 61개국
국제인터서브 파트너 수 7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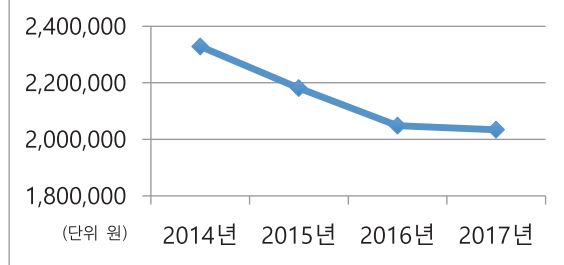
2017년 인터서브코리아 재정 보고

2017년 선교사 재정 후원현황

(단위 원)

총 생활비 후원금	2,538,416,292
총 사 역 비	1,735,180,701
Unit 숫자	104
Unit 당 월 생활비 후원금	2,033,987
Unit 당 년 생활비 후원금	24,407,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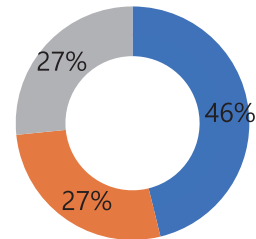
파트너 unit 당 월 후원액 변화



인터서브 본부 행정 재정 구성 - 수입

선교사 본부 후원금	46.15%
본 부 후 원	27.26%
본부 사역 수익	26.59%
총 계	425,045,116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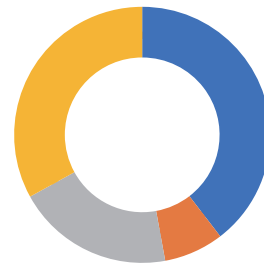
- 선교사본부후원금
- 본부후원
- 본부 및 기타수익



인터서브 본부 행정 재정 구성 -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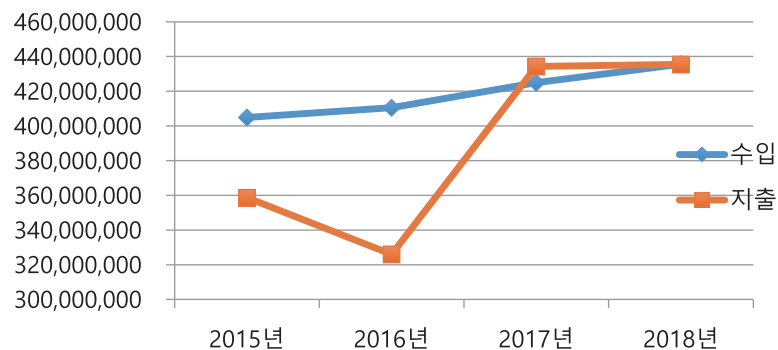
인 건 비	39.96%
리더십팀	7.63%
사 무 실 운영비	20.06%
부 서 및 전략프로젝트	33.35%
총 계	434,378,904 원

- 인건비
- 사무실운영비
- 리더십팀
- 부서 및 전략프로젝트



본부 재정 수입과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원)



“드디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나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헌신한 이후, 여러가지 선교 훈련과 삶의 훈련을 받기를 십여 년, 드디어 보내시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선교지로 오기 전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여러 강의를 들으며 문화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기에 스스로 선교지에 잘 적응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와 닿기까지 실생활에서 많은 부딪힘과 실수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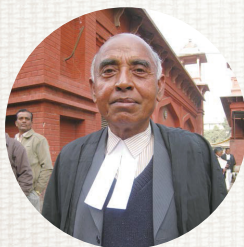


첫 정착을 하는 기간에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 특히 현지인들과 함께 해결해 가야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초년 선교사였던 나는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 나의 문화적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기에 ‘나는 옳은데’ 그들은 틀리게 보였다.

이런 눈으로 현지인들을 보니 매사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이 우습게 보였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려는 자가 되어있었다. 그로 인해 현지인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내 마음 속에 그들이 사랑스럽고 가깝게 느껴지기는 커녕 그들이 나와 다른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실상은 내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간 이방인이었는데도 나의 마음속에는 마치 그들이 ‘나의 세계에 들어온 외계인’ 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이들을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어려움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 들어 괴로웠다.



그러나 언어 선생님들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가며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니 점차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고, 드디어 내 마음속에도 그들은 나와 ‘다른-different’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되었다. ‘틀림-wrong’ 이 아니라 ‘다름-different’ 을 인정하게 되니 드디어 내 마음속에 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니 이제는 그들이 ‘**사람’ 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이’, ‘아줌마’, ‘아저씨’ 로 보이기 시작했다. 첫 텀 3년을 마치고 난 후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나에게 드디어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는 분명히 ‘사람들’ 이 보였지만 그들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 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의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나에게도 나의 첫 3년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주님이 내 눈을 밝히시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그들이 ‘나의 세계에 들어온 외계인’ 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 인 것이 인정된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살았던 이방 땅의 주인들에게 겸손하게 절하고 인정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겸손히 배우며, 그들의 아픈 곳을 감싸주는 선한 그리스도인 이웃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미살 파트너는 2010년 인터서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P국에 파송 되어 현재까지 커피관련 BAM과 K부족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스토리

비제이(Vijay) 선교사

청년 텐트메이커 커뮤니티

“대학생 때 선교동아리에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청년 선교 모임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다텐 모임에서 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청년들이 모였다는 것이 좋았고요, 기대 이상이어서 다음 모임도 기다려집니다.”

11월 청년 텐트메이커 커뮤니티에 처음 참석했던 한 자매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청년 텐트메이커 선교현신자를 훈련하는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프로젝트(다텐프로젝트)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청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선교에 헌신된 청년 한 명 한 명을 만나다 보니 동일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텐트메이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교회와 선교훈련들은 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아 막연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20대 청년들인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줄 교회도 없고, 아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결국은 신대원을 가야 하나 고민 중인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텐트메이커 선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을 동감하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다텐프로젝트의 사역에 중요한 인도하심이 되었고, 청년 텐트메이커 선교 현신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났던 몇몇의 청년들에게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시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첫 모임을 기다렸습니다. 서너 명이라도 텐트메이커 선교에 헌신된 청년들이 온다면 가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11명 그리고 십 일월에는 14명, 십 이월에는 19명의 청년들이 모였고, 모임은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타 문화권 제한된 지역에서의 청년 선교 현신자 커뮤니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점점 더 모이는 것이 놀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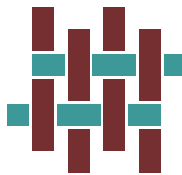


‘크리스천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역 교회에서의 20대의 이탈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5%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학원선교단체 간사들의 절망 섞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헌신된 전문인 선교 자원을 발굴해서 선교사로 보내야 하는 인터서브에게도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위한 당신의 세대를 세우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청년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뿐입니다. 이 새로운 선교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비제이 파트너는 2016년 인터서브 허입 이후 한국 인터서브 본부의 전략사역 담당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전문인 혹은 창조적 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다음세대 텐트메이커를 양성하기 위해 20-30대 청년들과 함께 다음세대 텐트메이커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2017년 연례 보고서

A journey of Inter-Serving

인터서브와 함께 하는 여정

